

태풍 '끄라톤' 대비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사진설명)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가 30일 오전 공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8호 태풍 대비 주요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제18호 태풍 '끄라톤' 북상 대비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전국 9개 본부와 93개 지사가 모두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저수지 수위 관리부터 배수장 사전점검·정비를 포함한 시설물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연락체제유지, 유관기관 협업체계 파악 등 비상시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는 "차바, 미탁 등 가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례가 많다."라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여 태풍 경로 모니터링, 농업기반시설 배수시설 관리, 예찰 강화 등으로 태풍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자원관리처	책임자	부 장	노경태 (061-338-6711)
	재난관리부	담당자	과 장	이원재 (061-338-6823)